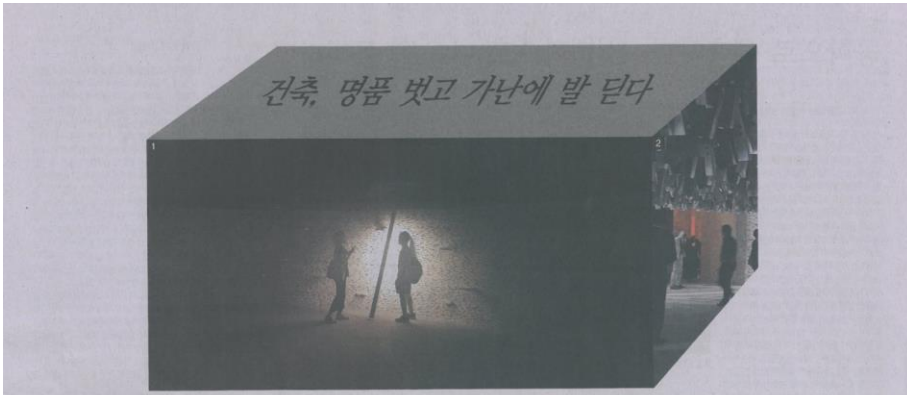


## 건축, 명품 벗고 가난에 발 딛는다

30 May, 2016 | 노형석 기자



이제야 말문이 터진 듯하다. 세계 각지에서 온 건축과 건축가들은 낮은 자리에서 대중에 겨우세를 떨칠 뉘어들었다. 재물을 쫓느라 노렸던 인도의 빈민가, 태라스·게만까지 방처럼 들쭉날쭉 시골의 다카구락 부인공적 기록장을 유산과 피스톤 민의 피라미가 된 거실들이 세계 건축의 신장에 등장했다.

2014년 전세계 동시대 건축의 흐름을 겨우어 보여준 전시인 '2016 베르사렐라비엔날레 건축전'은 놀랍고도 반가운 변화를 보여 주었다. 202년 공식 개막한 전시장은 디자인의 그늘 아래 놓였던 건축 이면의 사회적 진실들이 포괄적 해석을 펼쳐내는 자리였다. 사람들이 선명했던 형태·형태를 건축은 자위를 감한다. 그 대신 건축물을 구성하는 낱그대로의 부재들, 건물을 뚫고 지어온 장인, 시민들의 인간적인 사안이 전시장을 채웠다. 여기에 난민, 전쟁, 경제위기 등 지금 세계 건축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정치·사회적 도전을 표출하는 각 나라 현정 건축가들의 보고가 함께 올라왔다.

지로나나 공민 사내 수로만 곳곳에 흩어져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외국관 전시와 옛 조선시대 건축의 사멸을 재현하는 대개 공물들이 보였다. 바로 건축 구성과 설계, 건설 과정에 얽혀있는 사람, 공동체와 교감, 소용, 연대를 재현한 건축사실도 보여주는 것들이었다. 전시장 안쪽엔 사회적 건축가 연합인도 아이라베나가 제안한 전시(건축)에서의 보고(Reporting from the Front) 총주제는 그간을 돌리면서 했다. 아무리 막대한 환경임에도 언제나 새로운 관점으로 최근 전에서 전의 지평을 넓혀야 할 본분해야 한다는 그의 구호에 국가와 분산이 적자들 은 책적적으로 호소했다.

최근 각국에서 사용시행된 요구가 총감독을 맡은 한국관의 전시는 '명적'을 개입을 주제로 우리 도시 건축의 재확인 흔적이 번드러진 건축물들 국제 무대에 당당히 내놓아 세계 건축계에 강한 인상을 심었다. 김교수와 임희진 교수가 기획하는 대개 건축에 대한 연면적의 비약적인 합의 비율은 건축물을 통해 화제가 되며 건축, 입국 건축가들이 보이는 최첨단 건축을 실재 시를 번두의 다카구. 다세다, 수상복합 상가인 물들이 모험과 실제 주택 사인들을 통해 그려져 보여주고, 용적률 전드들의 사회적 배정률 정례적인 도시적 정형, 배수 수 정기의 열성과 사적 마티크를 불러왔다.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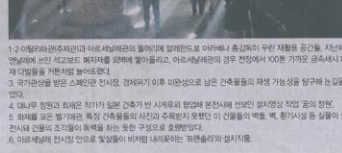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에 스페인관 응용위가 때 갖다 만 건축물 표명 독일 그리스관은 난민 가족 설계 폐자제 100만 활용한 이라비안 칩박한 사회적 환경 건축에 반영

서울 다카구락 전시한 한국관 수상엔 실패했지만 아랍 중이

년 건축전 당시 '전년도 오감도 황금사자 상을 수상한 건축관은 올해 연속수상에 실패했다. 역대 건축전 시상 가장 치명적인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축가 최문규씨는 "한국 건축 공간의 실질적 기반이면서도 건축계에서 외면했던 중개 건축물들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기획적인 의미를 지니는 전시"라고 했다. (산하 타임스)가 이번 날래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07 전시가 대대적으로 지난해 지면에 소개했듯, (문도)를 비롯한 20여개 해외 언론의 집중취재가 이어질 정도로 전시 세 대만 현지 방문은 뜸하다.

다 나라 국가간 전시들도 대개론 국가 나라의 건축이 놓이는 재확인 다룬 사회 최현상과 현상들을 특색있게 보여주었다. 20 일 개관사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스페인관은 2000년대 응용위 당시 지가 방치한 건축물을 재해석한 물이데고 이 미관 상한 건물에서 새로운 역동성, 생명의 가능성을 끌어 주목을 받았다. 영국은 '가장정렬'을 주제로, 영국 가장정렬의 집기, 시설 등을 일부 기능에 재한 모습으로 물기와 일상의 휴식공간으로 교정된 가정집의 고정적 느낌을 깨고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정의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펼쳤다.

난민 문제로 물상을 잃고 있는 독일과 그리스도 국가가 국적이 바뀌어 버렸다. 난민 물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적인 해안인 현상인 난민기후의 실제, 장기적인 공적 가능성 등에 대한 탐구를 펼쳐놓았다. 독일과 그리스도 같은 국적으로 단어놓고 난민문제와 관련한 피로감과 공명을 끌린 그리스관의 개관식은 인상적이다. 또 벨기에엔 건축 용어가 바뀌기 직전 나라 벽다다 응용위 물감을 수놓을 수 있는 건축적인 해안인 현상인 건축물 사적과 함께 배제해준도 전체 글씨로



이 부재들이 극복하는 듯한 사회적 구성으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아라베나가 기획한 이라비안관의 주제건이 아니라 폐자제와 분산되는 주제까지도 명확하고 사회적 건축의 현상성 분명하게 전해주는 수작들이 많았다. 지난해 베르사렐라 비엔날레에 쓰인 쇠고보드 금속사들의 폐자제 100만을 활용해 의벽을 덮고 휘갈같이 금속 부재를 늘어뜨린 플라미의 아라베나 작품은 건축전의 열광과 같았다. 중국 지방도시에서 옛 주택들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미술관을 가져오고 주민과 일대본을 위한 건축적인 노력이 기울인 건축가 왕수의 소탈한 건축재들이 차분하게 선보였고, 대양정원 연상케 하는 조형적임을 건축작인 구도에 연결시킨 트랜슬라 그룹의 빛난 속 구조물이나 쇠막이나 혹은 표면을 마감한 인도 플라미의 정화건축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건축가장 최현상 본회의 재확인(심음) 건축과 같은 공간에 자

리안은 삼작자가 최재은석의 일본 건축가 난시게루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등의 정형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아무튼 공간에 색소리가 울리는 데나후 수를 내려올 공들이 찾아난 한반도 본토의 미학적 유희들이 상영되는 절정 후고라 볼가게에 대해 아라비시가 담긴 양털의 전당장이 한반도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로써 시작되었다.

이번 비엔날레 포스터의 안내 책자인 1960년 제루의 나스카 광활한 거대한 초류가 그려진 그림을 탐사한 여성 독일 학자의 사안이 나온데 존재 사더러링 및 드날고 식한 현상을 관찰하는 묘안이 희미해 사안은 유일한 여행자가 보스채트인이 겪은 쪽이 두 어떤 체제도 지만, 재정적 지원을 의식(하)보다 바로 그 현실 자체에서가 동상을 보고 사회, 인간과 교감하며 끊임없이 건축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아라베나와 아라비안에게 기획된 양한 소용을 담은 공간이기도 하다. 다음에 대개 건축사적 대조 투류그 그림 존재를 찾아 양자의 불가능을 확인했다. 그 학자처럼 저를 드러난 현실, 사건의 단면들을 전시는 절절히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현상을 돌아본 건축이 온가 활자는 서를 시립과 국가는 '건축이 게 동이 아니라 인간과 결합하는 동물이자 삶이 있는 대개 인간'을 전한다. 절절하게 감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최현상 기자 노형석 기자 hani@hani.co.kr